

2024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가 다같이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의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다같이

시편 128편 1-6절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설 교 인도자

기도제목나눔 올해 기도 제목이나 마음의 소원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다같이

온가족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주 안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시편 128:1-6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건강을 누리고, 성공을 거두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1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고의 축복입니다. (2절)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 해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결실을 바라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수고 없이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먹는다는 말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손으로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입니다.

둘째, 가정의 축복입니다. (3-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된 아내는 온 가족에게 기쁨과 만족을 끼치고 가족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자식들은 원 감람나무로부터 강한 생명력을 부여받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따라서 자식은 부모와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분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십니다.

셋째,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5-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은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넘어 믿음의 공동체까지 확대됩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부요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육이 새로워지고, 삶의 소망과 비전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